

## World Cup

■ 아드보 스위스전 어떤 카드 꺼낼까?

## 스리 백-포 백 변형 ‘매직포메이션’ 가동

‘매직 포메이션으로 알프스 전사들의 약한 고리를 뚫는다’

‘두 번의 매직 용병술’로 극적인 역전극과 무승부를 만들어낸 딕 아드보카트 축구대표팀 감독이 24일 열릴 조별리그 G조 마지막

상대 스위스와의 결전에서 또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지난 13일 토고전, 19일 프랑스전과 마찬가지로 선발 라인업을 철저히 배일에 짜놓았다. 결전지 하노버로 입

성하기 전 레버쿠젠 베이스캠프 훈련장에서

실시한 지난 21일 마지막 훈련은 전면 비공

개로 결정됐다. 커튼을 친 채로 D-2 훈련을

하는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토고전에선 선발로 스리 백(3-back), 프랑스전에 선 포백(4-back)을

각각 내세웠다. 그러나 두 차례 결전에서 드러

난 양상으로는 선발 라인업이 전체 흐름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경기 중 선수 교체

를 통해 어떤 포메이션으로 변형을 꾀하는지

가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토고전에서는 후반 수비수 김진규(이와타) 대신 공격수 안정환(뒤스부르크)을 투입해 4-2-4로 전환하면서 대역전의 분위기를 만들었고, 2-1로 앞선

뒤에는 다시 3-4-3으로 전형을 바꿨다.

프랑스전에서는 이를용(트라브존스포르)

을 빼고 설기현(울버햄프턴)을 넣어 포백 안

에서 변형을 시도한 뒤 박지성(맨체스터 유

나이티드)의 위치를 사이드→중앙→사이드

로 두 번이나 바꿨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스위스전에서도 한 가지 포메이션을 고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별리그 마지막 결전이라 같은 시간에 열리는 프랑스-토고전 스코어에 따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극악 처방이 나올 수도 있다.

변수는 아드보카트호 내부에도 있고 외부에도 있다. 우선 스위스의 포메이션이 유동적인 요인이다. 디아아몬드형 중원으로 중심을 잡고 4-4-2 전형을 구사하는 스위스는 알렉산더 프라이(렌)가 간판 공격수로 나오지만 투톱 파트너는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다.

토고전에 선발로 나온 다니엘 기각스(릴)가 복부 근육 부상으로 출전하기 힘들어 마르코 슈트렐러(쾰른), 하간 야킨(영보이스)

가 대체 요원으로 떠오른 상태. 슈트렐러는 전형적인 파워 스트라이커이지만 야킨은 플레이메이커에 가까운 새도 스트라이커형이다. 프라이-슈트렐러 투톱이라면 스리백이 안정적이지만 야킨이 나온다고 볼 맨 포백을 구사할 수도 있다.

내부의 변수는 박주영과 송종국이다. 박주영은 조별리그 두 경기에 단 1분도 선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아드보카트 감독이 언젠가는 슬 카드인에 틀림없다. 박주영이 왼쪽 또는 오른쪽 왕 포워드로 나올 때 스리톱의 구성이 달라지고 박지성의 활용도도 변할 수 있다.

프랑스전에 쓰지 않은 송종국을 다시 넣고 이영표(토론토)를 원래 자리인 왼쪽으로 돌릴 수도 있다.

태극전사 달콤한 냉수족욕

21일 독일 레버쿠젠 바이아레나 보조구장에서 훈련을 마친 한국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아드보카트 감독의 지시 아래

냉수 족욕을 하고 있다.

오는 24일 새벽 16강 진출의 운명을 가르게 될 G조 조별리그 최종전을 앞두고 ‘태극전사’들과 ‘알프스 전사’들은 상대팀에 대한 장점을 설명하면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하지만 상대팀을 칭찬하는 그들의 말 속에는 반드시 승리해서 ‘경우의 수’를 짜지 않고 16강 직행 티켓을 거머쥐겠다는 각오가 숨어있다. ‘동상이몽(同床異夢)’이 아닌 ‘이상동몽(異床同夢)’인 셈이다.

태극전사들의 승부욕은 남다

오른다. 오로지 우리가 이기는 것만 생각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스위스전을 끝내고 1-2경기 더 치르고 싶다”며 16강 진출을 넘어 8강, 4강전까지 올라서겠다는 김영철(성남)의 말이 모든 태극전사들의 공통된 ‘꿈’이다.

스위스 ‘알프스 전사’들의 각오 역시 태극전사들에 뒤지지 않는다. 토고전 결승골의 주인공 알렉산더 프라이(스타드 렌)는 이날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은

태극전사-알프스전사 결전

## “오직 승리 뿐”

이상동몽(異床同夢)

보다.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 4 강 진출국이 4년만에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면 한국 축구의 자존심이 크게 상할 수 있다는 게 태극전사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태극호의 주장 이운재(수원)는 21일 팀 훈련을 마친 뒤 “스위스 선수들이 빅리그에서 뛰고

는 있지만 그라운드에 나서면 평등한 입장에서 경기할 수 있다”며 승리에 대한 의욕을 드러냈다.

딕 아드보카트 감독의 출격 명령만 기다리고 있는 박주영(서울)도 “스위스를 이겨야만 16강에

강하지만 우리도 준비를 잘해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프赖이는 특히 “16강전에서 스페인을 만나지 않으면 한국을 꺾는 게 중요하다. 비겨도 16강에 오르지만 공격적인 플레이로 반드시 이기겠다”고 공언했다.

서로가 쉽지 않은 상대지만 반드시 승리해 16강 진출의 꿈을 일궈내겠다는 똑같은 꿈을 꾸고 있는 한국과 스위스. 과연 ‘승리의 여신’이 태극전사에게 미소를 지을지 지켜볼 일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30~20% SALE**  
(일부품목제외)

6/23(금)~7/17(월)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2006년 FILA가 15번째 생일을 맞이 하였습니다.

이에 그동안 성원해주신 고객님들께 보답하고자 FILA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FILA

FILA  
GOLF

FILA  
KIDS

FILA  
INTIMO

www.fila.co.kr